

금호고속 64년 무분규 기록 깨지나

사측, 복수노조 불인정 단체교섭 거부 노조 쟁의조정 신청... 파업 여지 남아

민노총 소속 금호고속 새 노조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을 하면서 64년간 이어온 무분규 사업장의 기록이 깨질 위기를 맞고 있다. 4일 전국 운수노조 금호고속 지회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

지회 관계자는 "법원이 산업별 노조에 해당할 뿐 복수노조에 해당되지

이 경우 금호고속이 1946년 설립 이래 이어온 64년간 무분규 기록도 깨지게 된다.

사측은 전국 운수노조 금호고속 지회는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교섭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금호고속 노사 갈등은 이미 예견됐다. 지난달 14일 법원이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운수노조)이 금호산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응낙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면서 지난 7월 출범한 민주노총 소속 금호고속 노조에 힘이 실렸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측과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사측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한 결과 복수노조에 해당돼 단체교섭을 안한 것"이라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상태이며 새 노조의 인정 여부는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호고속 노조는 한국노총 산하 '금호산업' 소속사업자부 광주분회' 소속으로 활동했지만 650여명의 조합원 중 300여명이 탈퇴해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에 가입하면서 노조가 2개로 분리됐다.



코스피 지수 연중최고 코스피지수가 1,940선을 뚫고 연중 고점을 다시 뚫었고, 달러화 약세에 원·달러 환율은 1,110원 아래로 떨어졌다. 4일 코스피지수는 6.53포인트(0.34%) 오른 1,942.50에 거래를 마쳤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2.70원 내린 1,107.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의 모습.

내년 중견기업 세무조사 강화

오너 자금유출 혐의 150곳... 법인 3091개 정기조사

내년에 실시되는 국세청의 '2010년 분 정기세무조사'에서는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인 중대기업 가운데 조사대상기업이 전년보다 130개 이상 늘어나는 등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확대·강화된다.

특히 오너의 자금유출 혐의가 있는 중견기업(수입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150개는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4월 '2010년분 정기조사 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규모'를 통해 내년에 실시되는 2010년분 정기조사 대상은 법인의 경우 3091개로 전년의 2943개보다 598개 증가했다고 밝혔

732개가 조사대상에 선정돼 전년 595개보다 137개가 늘어난다.

특히 매출 5000억원 이상의 순환주 기(4년)를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올해 19.2%(86개)이던 조사대상선정 비율이 내년엔 22.1%(110개)까지 높아진다.

국세청은 또 사주의 기업유출 자금 의혹이 있는 기업 150여곳을 중점 조사항목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매출 300억~1000억원 기업으로 이중에서도 800억원대 이상 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 국세청은 내년 정기 세무조사 개인사업자 조사대상자는 올해 1500명보다 500명 늘어난 2000명으로 2007년 수준이라고 밝혔다.

농협 김치·고추장 중 광저우AG 공급

오는 12월부터 시작되는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농협김치'가 공급된다고 4일 농협이 밝혔다.

공급물량은 배추김치 3t, 깍두기 3t, 고추장 50kg이다.

농협은 "농협김치는 지난 96년 미국 애틀랜타올림픽 선수촌 김치 공급을 시작으로 2000년 시드니올림픽, 2004년 아테네올림픽, 2008년 베이징올림픽까지 4회 연속 올림픽에 납품했다"면서 "이번에는 처음으로 한국 고추장까지 공급하게 돼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3분기 광주·전남 신설법인 수 소폭 감소 2억5천만원 미만 소규모 창업 87%

한은 동향... 808개사 등록

올 3분기 중 광주·전남 지역 신설법인 수가 소폭 줄어든 가운데 2억 5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창업이 전체의 8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2010년 3분기 광주·전남지역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 신설법인 수는 808개로 전 분기(825개)보다 17개 감소했다.

광주지역은 411개로 전 분기(452개)보다 41개 감소한 반면 전남지역은 397개로 전분기(373개)보다 24개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과 서비스업이 각각 10개, 19개씩 감소하는 등 대부분 업종이 감소했다.

자본금 규모별 신설법인은 5000만

원 이하 52.5%, 5000만원 초과~2억 5000만원 미만 35.0% 등 2억5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창업이 705개로 전체 신설법인의 87.2%를 차지했다.

또한 5000만원 이하의 창업 비중이 전 분기보다 2.7%포인트 감소했고, 5000만원 초과~2억5000만원 미만의 창업 비중은 1.4%포인트 증가했다.

한국 식품물가 상승률 OECD 2위 3개월 연속 상승... 회원국 평균보다 6배 높아

우리나라의 식품물가 상승률이 3개월 연속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OECD 물가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 9월 식품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3% 올라 터키(15.3%)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폭이 컸다.

9월 OECD 전체 회원국의 평균 식품물가 상승률은 2.3%로 우리나라는 평균보다 6배가량 식품물가가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과 8월에도 식품물가 상승률이 OECD 회원국 중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9월 식품 물가는 우리나라에 이어서는 영국(5.1%), 칠레(4.3%), 헝

가리와 폴란드가 각각 4.2% 수준으로 OECD 회원국 중 높은 편이었으며, 핀란드(-3.6%), 아일랜드(-2.0%), 뉴질랜드(-0.4%), 스위스(-1.0%), 노르웨이(-0.3%)의 5개 국가는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외에 스페인(0.1%), 이탈리아(0.4%), 이스라엘(1.1%) 등이 OECD 회원국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낮은 나라들에 속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식품물가 상승률이 고공행진을 계속하는 것은 배추, 무 등의 작황이 좋지 않아 여름부터 신선식품 물가가 연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기 때문이다.

샘표식품 대졸 30명 모집

샘표식품(대표 박진선)은 9일 오후 3시까지 홈페이지(www.sempio.com)에서 신입사원 원서를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예정)자로 경영, 영업, 마케팅, 생산, 기술연구 등 5개 부문에서 30여 명을 선발한다.

▲ 코스피지수	1,942.50 (+6.53)
▲ 코스닥지수	531.53 (+5.64)
▲ 금리(국고채 3년)	3.50% (+0.07)
▼ 원·달러 환율	1,107.50원 (-2.7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美 소비자 '가장사고 싶은차' 기아 '쏘렌토R' '쏘울' 선정

현대·기아차는 현대차 '제네시스' '쏘나타'와 기아차 '쏘렌토R'과 '쏘울'이 미 소비자잡지 '컨슈머 다이제스트'의 '2011 가장사고 싶은 차'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컨슈머다이제스트지는 미국내 판매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의 디자인, 성능, 편의사양, 유지비용 등 다양한 측면을 평가해 매년 추천차종을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는 2011년형 250여 모델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쏘나타'와 '제네시스'는 각각 중형차와 럭셔리차 부문에 기아차 '쏘렌토 R'과 '쏘울'은 각각 소형 SUV와 소형차 부문에서 추천차종에 올랐다. 한편 미국 브랜드 조사기관 브랜드 키즈(Brand Keys)는 지난달 말 발표한 고객 충성도 조사에서 현대차를 자동차 브랜드에서는 1위이자 총501개 전체 브랜드에서는 6위에 올랐다.

고철시장 90일 어음 사라진다 내년부터... 제강·철스크랩업체 동반성장 협약

내년까지 철스크랩(고철) 시장에서 90일 어음이 사라진다.

현대제철, 포스코, 동국제강, 동부제철 등 10개 제강업체와 기전산업, 부성자원 등 14개 철스크랩업체는 4일 오전 소공동 프라자호텔에서 이번 내용의 동반성장방안을 마련하고 협약식을 가졌다고 지식경제부가 전했다.

제강사들은 철스크랩을 전기로로 녹여 제품을 생산하는 '수요처'이고,

철스크랩업체들은 제강사들에 철스크랩을 납품하는 '공급처'이다. 그동안 대다수 제강사들은 90일 어음으로 철스크랩업체에 결제해왔으나 이번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번 동반성장방안에 따르면 제강업체는 철스크랩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현재 철스크랩 거래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90일 이상의 약속어를 할인기간을 내내일까지 60일로 줄이기로 했다.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프리모남녀가발

가발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초슬림!!

스킬과 망이 초극대화하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며 이질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귀하의 품위와 인격을 높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화상 두피함몰 등 가발의 모든 것 해결함
타사 제품도 신기술로 보완시술 가능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기든상가 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검색

최상품을 최저가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가격 파괴 50만원

대산프리모가발

특허방수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 가는 트라이슈머® 탄열시트방수

2중단열 방수,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전천후 시공성

엔지니어링을 필요로 하는 건물 외벽, 옥상, 지붕, 창문, 벽체 등

1. 여름철에는 전기로 절감 30~40%
2. 겨울철에는 난방비 절감 15~20%
3. 옥상정원을 조성했을 때와 같은 단열효과를 냅니다.

태양열차단 냉기차단
여름철 실내온도 3~5°C 겨울철 실내온도 3~5°C
전기료 30~40% 난방비 15~20%
냉방비 절감 난방비 절감

본사 전속모델
밸런트 이영후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 WWW.IPALG.COM 또는 이파엘지.kr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